

가채점 결과 따라 수시·정시 선택이 출발점

입시전략 어떻게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끝나면서 대학 입시가 본격화된다.

당장 수능 후 첫 주말인 17일과 18일에도 대학별 수시모집 논술전형 시험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면접이 진행된다.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수시 모집 면접 등 대학별 수시 논술·면접 고사 등에 응할 것인지, 정시에 집중할 것인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다. 입시전문가들이 '대입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가채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가채점 결과로 수시·정시 결정해야 = 수능 가채점 결과가 기대보다 낮다면 이미 지원한 수시모집 대학 대학별 고사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반면 성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면 정시지원이 유리하므로 이미 원서를 접수한 수시전형(학종)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주말 논술시험을 치르는 대학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단국대, 숭실대, 한국항공대 등이다. 학종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세종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등이다. 2019학년도 대입정책의 76%를 수시모집으로 뽑는 만큼 대다수 수험생이 수능 후 숨 돌릴 틈 없이 논술시험

예상 점수 낮으면 수시

높으면 정시 지원이 유리

내일부터 대학들 논술전형

광주교육청 20일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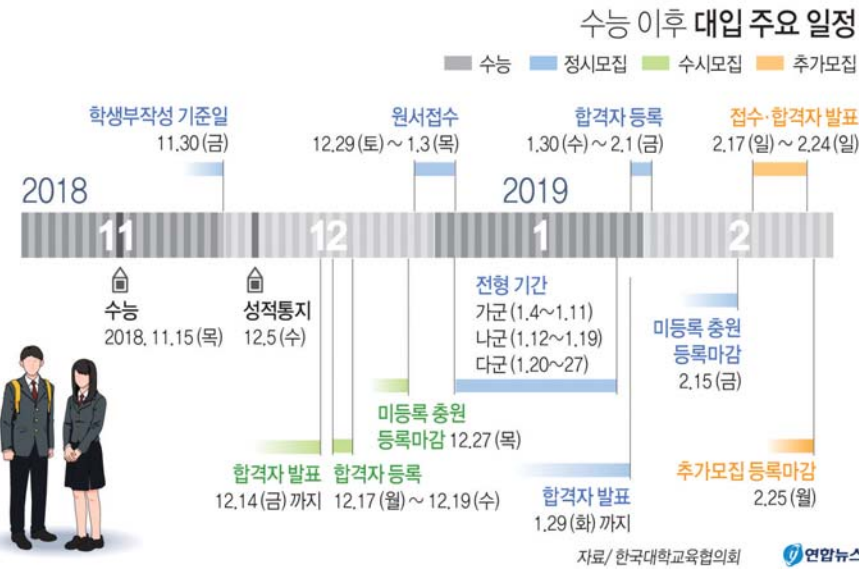
과 면접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시모집 논술전형 응시를 앞둔 수험생들은 수능 가채점 결과만 가지고 자신이 수시모집 수능최저기준을 충족시켰는지 가능해야 한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대학별 수시모집 전형은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14일까지다.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기간은 내달 12~19일, 추가합격 통보와 등록 기한은 각각 내달 26일과 27일이다.

◇정시모집 대학별 전형요소, 영역 가중치 살펴야 = 수능성적은 다음 달 5일 통지된다. 이후 같은 달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정시모집 전형 기간은 가군 대학의 경우 내년 1월 4~11일, 나군과 다군 대학은 각각 같은 달 12~19일과 20~27일이다.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9일까지 이뤄지며 등록 기간은 같은 달 30일



부터 사흘간이다. 마지막 합격자 발표인 추가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24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학별 수시모집 전형에 응시할지 결정하는 기준은 '내가 정시모집에서 어느 정도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시모집 지원 가능성을 정하는 것이 가채점"이라고 말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이른바 '배치표'는 수험생들이 접하기 쉽고 가장 많이 보는 자료이지만 대학별 전

행방법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말 그대로 참고용"이라면서 "대학별 전형방법을 적용해 계산한 '환산점수'를 알고 이를 대입전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설명회'와 '실제점 결과 분석 설명회'를 각각 이달 20일과 12월 12일 진행한다. 장소는 둘 다 광주교육정보원 1층 대강당이며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다. 채점 결과 분석 및 정시 지원전략을 안내하며 실제점 설명회에선 대학 배치 기준표도 배부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8, 해질 17:26, 달뜨기 13:45, 달지기 ---

마스크 착용하세요

대체로 흐리겠으며 미세먼지 농도 높겠다.

광주	흐림	9/13	보성	흐림	6/13
목포	흐림	10/13	순천	흐림	9/15
여수	가끔흐리고비	11/14	영광	흐림	7/13
나주	흐림	7/14	진도	흐림	10/13
완도	가끔흐리고비	10/14	전주	흐림	8/13
구례	흐림	6/13	군산	흐림	7/13
강진	흐림	8/14	남원	흐림	6/14
해남	흐림	8/13	홍산도	흐림	12/14
장성	흐림	7/13			

◇바다 날씨

지역	앞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북동	0.5~2.0
	남부	북동~동	0.5~1.5	북~북동	1.5~3.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1.0
	서부	남바다(동)	북동~동	0.5~1.5	북~북동
	남바다(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2.5

◇생황지수

뇌출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나쁨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각	시간	시각	시간
목포	01:20	07:25	12:46	20:13
	08:25	02:41	22:46	15:50
여수	01:20	07:25	12:46	20:13
	08:25	02:41	22:46	15:50

◇주간 날씨

날짜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날씨	☁	☁	☁	☀	☁	☀	☀
강수량	5/14	4/13	6/13	2/12	3/12	2/11	3/12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서 출제 70%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

이강래 수능출제위원장



이 위원장은 올해 난도와 관련해 “두 차례 시행되었던 6월과 9월 모의평가 반응은 분석하고, 그 추이를 감안하면서 모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위원장인 이강래(사진)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15일 “올해 수능은 예년과 같이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능 시작시간인 오전 8시 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제 방향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고 수학과 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 평가를 지향했다”며 “한국사 영역은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 평가를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해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올해도 영역·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는 EBS 수능 교재·강의와 연계해 출제했다.

의 평가 기준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며 “두 차례 모의평가 반응들이 유의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1교시 국어영역 시간에는 문제지에 오·탈자가 있어 학생들에게 정오표가 함께 배부됐다.

이 위원장은 “오기는 하나의 면에 있는 한 글자가 두 군데에서 잘못 들어갔다”며 “문제풀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문제지 배부 준비를 완료한 토요일(10일) 새벽에 발견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재인쇄할 시간이 없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여긴다”고 사과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영역별 출제 난이도 보니

국어 지문 길고 대체로 어려워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게 광주 교사들과 입시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해 수능 국어가 평년보다 어려웠다는 점, 가장 최근 치른 9월 모의평가보다 올 수능 국어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체감난도 역시 높았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현직 국어교사들과 입시전문가들이 올 수능 국어가 대체로 어려웠다는 평가를 내린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정보의 양이 많고(지문이 길다), 고난도 문제가 최소 2개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45개 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해서 독해력이 약한 수험생들은 시험을 어렵게 느낄 수 밖에 없고, 상위권 학생 일부도 시간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면 평소보다 실력을 발휘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능 국어의 가장 큰 변수로 화법과 작문을 들면서 그 이유로 “문제 난이도와 관계없이 제시문 정보가 너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고난도 문제로는 13번, 31번 문제가 꼽힌다. 합성어의 국어사적 변화상을 묻는 13번 문제의 경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현대국어를 종합해서 적용해야 하는 문제로 종합적 국어 문법 지식을 요구했다. 31번 문제는 <보기> 내용이 수험생에 부담을 줄 정도로 많을 뿐 아니라 과학제재로 된 제시문 자체의 난도도 높았다는 게 교사들의 분석이다.

신하돈 광덕고 국어교사는 “시간 관리 성패가 고득점 여부를 가를 것”이라며 “1등급 컷의 경우 지난해 수준(원점수 93점)으로, 2·3문제 안으로 틀리면 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수학 92점 1등급 컷 형성될 듯

광주교사들, 입시전문가들은 올 수능 수학영역이 대체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주로 이과생들이 보는 수학(가형)은 지난해 수능과 올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문제 수준이 비슷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고난도 문제인 21·29·30번 3개 문항이 1·2등급을 가를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올 수능 역시 92점(4점짜리 2문제 이내로 틀린 학생)에 1등급 컷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1문제 차로 1·2등급이 갈릴 것이라는 것이다.

고난도 문제의 하나인 21번 문제의 경우 적분법에 대한 이해를 물었는데, 기존 기출문제에서도 활용했던 문제 유형이어서 기본에 충실했던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9번 문항도 평면에서의 벡터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왔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문과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나형) 역시 지난해 수능, 올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변별을 위해 출제된 21, 29, 30번 문항 해결 여부가 등급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고난도 문제로 꼽히는 30번 문항의 경우 미적분(I)에서 출제됐는데,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웠다는 게 지역 교사들 설명이다.

수학(가)(나)형 모두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적어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30문제를 100분 안에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게 교사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영어 1등급 비율 8.5% 추정

영어영역은 지난 6,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게 광주 교사들과 학생들 반응이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문제 난도가 다소 올랐으나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절대평가 체제인 영어는 1등급 인원(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8.5%대로 추정됐다. 지난해 6, 9월 모의평가 1등급 비율은 각각 4.19%, 7.92%였으며, 지난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10.3%였다. 출제 문제 유형도 지난 6, 9월 모의평가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올 수능 영어는 2차례 모의평가보다는 쉬웠고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수능과 유형상 변화는 지칭추론 문항이 줄어들고, 21번 함축의미 추론(신 유형), 42번 문맥어휘추론(2018 수능 빈칸추론) 문항이 추가된 것으로, 이는 지난 2번의 평가원 모의평가를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게 광주 교사들 설명이다.

1등급을 결정하는 킬러 문항(고난도 문항)으로는 23번 주제추론, 29번 문맥 속 문법성 판단, 33번 빈칸 추론 문항이 꼽힌다. 23번 문항은 ‘환경변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정답을 추론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9번 문항은 도치구문과 현재완료 구문이 섞여 있는데다, 실수하기 쉬운 오답들이 있어 수험생들이 정답을 찾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라 분석이 있다. 33번 문항 역시 지문 파악은 어렵지 않지만 헛갈리기 쉬운 오답이 있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